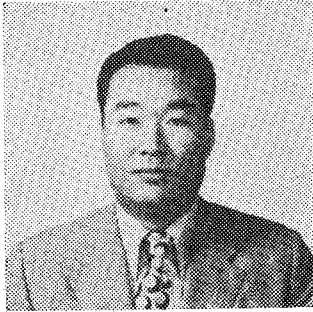


美國飼料穀物畜産分野의 現況과 展望



차 영 우

〈미국 사료곡물협회 차장〉

필자는 지난 8-9월에 걸쳐 미국의 주요 사료곡물 생산지역을 돌아보면서 미국의 사료축산현황을 살폈고, 워싱턴에서는 정부 및 업계 지도층으로부터 이 분야의 금후 전망에 대해 알아 보았다. 지나간 1년여에 걸쳐 세계적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는 사료 곡물가격과 미국의 올해 흉작을 세계인플레이의 압력속에서 축산물수요감소 및 생산감소를 자초하고 있어 현재 축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그래도 미국엔 풍부한 초자원이 있기 때문에 곡물위주로 밀집사육되던 짐승들도 이제는 자꾸만 풀밭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여행중에 보고 들은 것과 정부자료를 기초로 하여 미국의 이 분야 현황 및 전망을 아래에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세계 사료곡물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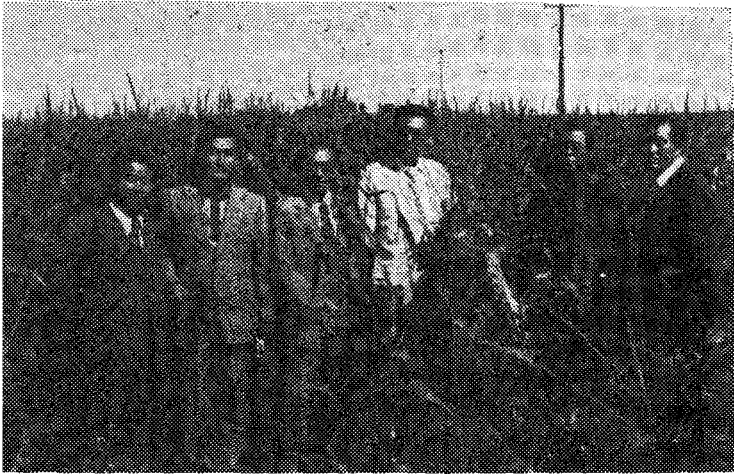
세계의 75년도 사료곡물 생산량은 74년 수준인 5억9,800만톤 보다 1,800만톤이 감소한 5억8,00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세계 사료곡물 수확예상량은 미국의 감산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75년도 생산량이 작년의 기록적 수준보다는 대폭 감소한 것이 최근의

수년간의 증가추세 보다는 약간 감소했을 뿐이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 사료곡물 생산국인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도 생산증가 계획에 실패했으나 소련만은 1억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곡(粗穀)이 중요한 식량이 되고있는 인도와 남부아시아 지역에서도 사료곡물의 상당한 감산이 예상된다.

세계의 사료곡물 공급상태는 지금까지 수요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각종 잡곡생산이 금년에 남부아시아, 중공, 에디오피아 등에서 크게 줄어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더욱 꺾박할 것 같다.

75년도의 세계사료곡물 수요는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가격이 사료곡물과 접근하고 있는 다량의 소맥을 가축에게 먹일 가능성이 커져 작년 보다는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 미농무성은 서유럽의 미국 사료곡물 수입수요가 1개월전 예상보다도 1,000만톤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료곡물 가격상승과 육류가격 하락추세에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세계 유지작물 생산량은 미국의 대두감산으로 약간 줄어들 것 같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73년의 대두풍작으로 200만톤의 대두가 이월될 것으로 보이며 페루가 74년에 앤초버 어획을 재개해 어분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



〈미국 시찰단 일행 필자는 우로부터 세번째〉

었다. 브라질 대두생산 및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땅콩 생산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프리카에서는 73년보다 증산될 전망이어서 수출도 늘게 될 것 같다.

세계의 육류 수급상태는 완전히 뒤바뀌어 사료곡물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육가격은 생산국과 소비국에서 모두 하락했다. 주요 수입국들은 우육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EC는 현재 12만5,000톤의 우육 과잉재고 때문에 10월말까지 우육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미국 농산물 및 사료곡물 수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1972회계년도에 80억 달러를 기록했다. 73회계년도에는 농산물수출량이 6,000만톤에서 9,000만톤으로 증가했고 수출액도 기록적 수준인 129억 달러에 달했다. 74회계년도의 농산물 수출량은 1억톤, 수출액은 전례없는 213억 달러였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량은 1970년이래 2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74회계년도의 수출액 증가는 85%가 농산물 특히 사료곡물, 소맥, 쌀, 콩, 면화 및 각종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민간 수출부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계획에 따

른 농산물 원조액은 최근 10억달러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격상승 때문에 외원 농산물의 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74회계년도중 주요 농산물 가격이 거의 상당수준 상승했으나 특히 소맥, 사료곡물 및 대두가 급등했다.

74~75년도의 세계 사료곡물 생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73~74년도보다 약 1,800만톤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료곡물 생산은 73~74년도보다 약 1,000만톤 정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의 사료곡물 생산패턴이 바뀜으로서 74~75년도의 사료곡물 무역량은 73~74년도보다 1,900만톤(약 25%)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곡물 생산이 감소한 미국은 73~74년도의 사료곡물 소비 및 수출패턴을 사실상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조정의 필요성은 가격과 수출 및 국내 소비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사료곡물 재고는 74~75년도 시즌말기에는 상당수준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사료곡물 감산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74회계년도에 4,400만톤에 달했던 수출량은 75회계년도에는 (74.7~75.6) 2,130만톤~2,670만톤으로 줄어들 것 같다.

이미 언급한대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다른 지역의 사료곡물 생산은 74~75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부유럽지역의 곡물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견되는데서 유럽은 가격만 적당할 경우 잉여소맥을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사료곡물 수입을 크게 줄일 것 같다. 더구나 서방의 주요 공업국들은 경제침체시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유통년도에는 지난 2년간에 비해 사료곡물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간단히 말해 74년 6월30일 끝난 농산물 무역은 미국의 국제수지에 118억달러의 흑자요

인으로 공헌했다. 이러한 농산물 무역흑자는 비농산물 무역적자를 상쇄하고도 남아 미국의 전체무역 수지를 흑자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75회계년도에는 소맥과 사료곡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전체 수출액도 크게 줄어들 것 같다. 농산물 수출량은 2,500만톤~2,600만톤 정도가 줄어들 것이나 금년의 곡물가격이 작년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량이 감소되더라도 수출액은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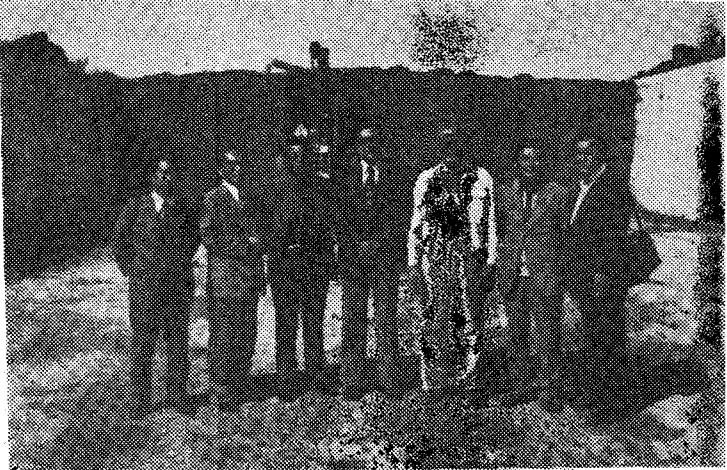
농산물 수출은 미경 농가의 수입 증가와 국제수지에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75회계년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으나 대략 200억달러~21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액수는 74년보다는 감소한 것이나 과거 다른 년도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이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도 증가하고 있고 높은 원유가격 때문에 전체 수입액도 크게 증가할 전망임을 고려할때 미국은 농산물수출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사료 및 축산물사정—

금년의 사료곡물 생산감소는 가축 및 가금 생산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적육생산은 금년 남은 기간중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인데 이는 육우의 사육기간이 길고 양돈패턴 변경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로일러와 우유의 생산은 금년말 이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1975년의 가축생산은 우육공급이 약간 감소하고 돈육과 부로일러 공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옥수수, 수수, 귀리 및 보리의 총생산량은 작년보다 15% 적은 1억7,500만톤으로 예상된다. 이월재고가 감소한 것도 74~75년도의 사



〈옥수수 사이로에서 뒤에 보이는것이 옥수수〉

료곡물 공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 같다. 74~75년에 공급될 가축 두당 사료곡물 공급량은 1947년의 한발이래 최저수준에 이를 것 같다.

74~75년에는 국내 사료곡물 사용량과 수출량이 모두 크게 감소할 것이다. 가축 및 가금 가격과 비교해 사료가격이 높기 때문에 국내 사료곡물 사용량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료곡물을 소비하는 가축두수는 10%정도 감소할 것이며 가금수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 시장에 출하되는 생돈의 생체중량이 감소할 전망이고 육우와 부로일러 평균 중량도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료곡물 사용량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세계 사료곡물 수요는 재고가 부족했고 소비자들이 적육과 가금육 구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료가격의 상승과 각국의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해외수출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시카고 옥수수 가격은 황색 2호가 6월초 100불 당 96불38센트하던 것이 최근에는 145불78센트로 등귀했다. 옥수수 가격은 75년 작황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는 고가를 유지하게 될 것 같다.

① 부로일러

부로일러 생산은 74년 전반기에 73년 전반

기보다 6%가 증가했으나 최근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늦여름에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부로일러 병아리 입식이 감소했으며 최근의 입란 실적 또한 감소하고 있다.

75년 전반기의 부로일러 시장출하는 이윤감소로 인해 74년 1월~6월 출하 수준보다 10%~20%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금년말의 부로일러 출하감소는 금년 가을의 계절적 가격하락에 의한 감소 수준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부로일러 가격은 내년초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속도는 우육의 대량출하에 영향을 받아 완만할 것 같다.

② 계란

계란 생산은 산란계 숫자의 감소에 영향을 받아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은 금년 나머지 기간과 겨울 및 내년 봄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다. 가격은 가을까지 계속 상승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겨울에는 금년 가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내년 봄에는 약간 하락할 전망이다.

③ 우유

금년 7월의 우유생산은 1972년 9월 이래 처음으로 작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유우두수 감소추세는 2% 수준으로 완화되었으나 두당 우유 생산량은 작년의 매우 낮은 수준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두당 생산량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 사료가격의 앙등은 금년 4.4분기의 우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74년 전체의 우유 생산량은 73년의 5,260만톤 보다 1.5% 정도가 감소할 것 같다. 75년 전반기의 우유생산은 계절적으로 증가해 금년 1월~6월 생산수준과 비슷할 것 같다. 농민들이 받은 우유 가격은 금년 7월에 100파운드당 7.55달러로서 최고 수준이었던 금년 3월 보다는 1.40달러가 감소했으나 73년 7월수준 보다는 15%가 증가한 것이다. 우유가격은 금년 가을과 겨울에 계절적 상승세를 보일 것 같다.

④ 돈육

금년 여름의 돈육생산은 이례적으로 낮았던

작년 여름 수준을 능가했다. 그러나 금년 여름의 돈육생산량은 계절적 요인때문에 봄보다는 감소했고 거세돈과 암돼지 가격은 100파운드당 30달러 선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가을의 계절적인 돈육생산 증가와 저질 우육의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어 가을에는 생돈가격이 30달러선을 약간 상회할 것 같다. 75년에는 돈육 공급이 줄고 생돈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며 금년 6월 1일의 숫돼지 거세추세로 보아 75년 초의 돈육 공급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옥수수 가격이 오름으로서 75년 1·4분기의 돈육 생산은 5%~10%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돈육과 부로일러 생산 감소로 오는 겨울과 내년봄의 생돈가격은 30달러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견된다.

⑤ 우육

미국의 육우두수는, 지난 수년간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사육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크게 증가했다. 금년초의 전체 육우두수는 3년전보다 1,300만두가 증가한 1억2,750만두를 기록했다. 금년에도 600만~800만두가 증가할 추세인데 송아지 생산두수도 금년에 지난 3년간보다 400만두가 증가한 5,100만두에 달할 것 같다.

그러나 도살된 육우 및 송아지 두수는 1960년대 중반기 이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년동안은 도살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목장과 초원에 육우가 상당수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간 시장에 출하되는 육우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사료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어 대부분의 목장주들은 많은 육우를 겨울까지 사육할 수 없는 형편이며 따라서 도살수가 증가할 것이다. 도살수가 증가하면 74년말부터 75년초까지 저질의 우육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금년 여름의 육우 도살두수는 비교적 저수준이었던 작년 여름보다 크게 늘었다. 숫송아지 가격은 현재 100파운드당 평균 45달러선인데 이는 지난봄 가격보다 4달러~7달러가 높은 것이다.

Feedlot 육우는 높은 곡물가격 때문에 금년 가을이후 공급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초원에서 사육된 육우공급은 작년보다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X X

미국농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료곡물 및 축산업은 전대 미중유의 극도의 호황과 불황속에 놓여 있다. 곡물가격이 싸기 때문에 곡물로 팔기 보다는 그 곡물을 짐승에게 먹여 축산물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여 축산을 경하던 것이 대부분의 미국 농민들이었는데 이제는 축산물가격 상승률이 곡물가격상승률을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곡물 그 자체로 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된 것이다. 즉 곡물은 전례없는 호황이요 축산은 극도의 불황을 몰고 오게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물 수요국이자 수입국이다. 그러므로 국내생산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기 위하여 현하의 어려운 사료사정을 극복할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 사료절감 대책을 쓰거나 하면 곡물위주로 사양해오던 가축들로 가능한한 조사료로의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1975년도의 사료곡물수요를 가축두수 감소와 관련, 7~10%를 감소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일련의 현상은, 현재의 세계적 축산불황 현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금후 세계경기회복과 더불어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게 될때, 축산물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파동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의 생각을 깊게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미국의 축산업은 오랜 경험과 건전한 바탕을 배경으로 한 축산이다. 오늘날의 수요감소와 사료가격 앙등이란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력있는 산업인 것이다. 수요가 있고, 자원이 있고, 생산자 조직이 있고, 정책이 있는 한, 축산에 도전하는 장기적인 문제점이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가 축 예 방 약

◎ 치 료 제

◎ 소 독 약

◎ 사 료 첨 가 제

◎ 기타국내외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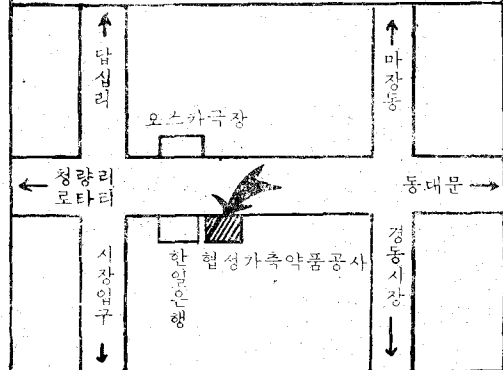
총판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7-8779
야간 96-92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협성가축약품회사